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김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갑)
고려대학교 사학과 / 미국 템플대 대학원졸(철학박사) / 제15대, 17대, 18대 국회의원(3선)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ACRP) 사무총장 /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장 /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수석부의장 / 주요 저서- 도(道)의 정치

그와의 만남은 마치 확률 낮은 복권 당첨 같이 이루어졌다. 해외 출장, 지역구 방문,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정책특위 참석 등 짝 짝인 일정 속에서 그 분으로서는 생소(?)하달 수 있는 '건축문화'에 대한 면담 요청은 당장의 탐탁한 사항은 분명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건축/도시/환경의 가치, 문화시대로의 흐름... 등이 작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번개미팅은 수용되었다. 사무적, 공적인 법안 검토나 설명의 자리가 아닌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분위기로, 다소 권위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 분위기와는 다르게 첫 인상은 유연함과 선함이 묻어났다. 마음의 창이 눈이라거나, 얼굴이라거나, 혹은 몸 전체의 분위기라고도 한다면, 이제 그 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다. 간단한 수인사를 거치는 짧은 동안에도 국감이 끝난 직후라 언뜻 일에 지친 피곤함이 없진 않았으나, 이내 밝고 카랑카랑한 음성과 대화의 자세는 첫 만남의 어색함과 생경한 주제를 넘어 여유롭기까지 하였다. 지역구에 대한 것이나 의원 활동에 대한 얘기에서는 저절로 활기가 생겨나는 듯 하였다. 길지는 않았으나 헤어질 때에는 처음에 가졌던 다소 사무적인 느낌과는 사뭇 다른 따뜻함과 흐뭇함을 안고 돌아 올 수 있었다. 그것이 그 동안의 작은 노력의 보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더 큰 성과, 훌륭한 의정 활동과 함께 국가와 건축의 발전, 바람직한 건축정책의 선도자 되기를 기원 드려 본다.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 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 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 할 역할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 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립니다.

요즈음 정치권 전체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고, 중요한 역할에 따른 역설적인 현상일 게다. 어쨌든 국회는 여전히 입법의 중추로써 현실적 권력이다. 법, 제도적 관계가 어느 분야보다 깊은 건축사들로서는 그 동안 그들과는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까이 소통할 노력도 또한 미흡한 게 아니었나 싶다.

평창의 환호 뒤로 곧 이어 여수 국제박람회 성공은 당장의 국가적 과제이며, 그를 주제로 먼저 그 지역의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였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치 있는 노력과 업적, 훌륭한 인품과 관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렇게 보였다.

박찬정 : 반갑습니다. 국감 수행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또 한 업무를 추가시켜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

김성곤 :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지 못한 분야라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박 :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가볍게 개별적인 것으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3선 의원이신데, 먼저 국회의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김 : 대학시절 아버님(故 김상영-89대 국회의원)의 영향으로 정치에 흥미를 보이긴 했지만, 이후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는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신앙과 교육'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후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교육과 종교를 통한 사회개혁의 길을 택하게 되었지요. 대학 강의, 종교평화운동(KCRP 사무총장, 서울평화교육센터 기획실장)에 헌신하다 선배의원의 불출마선언으로 갑작스럽게 15대 총선 여수(구, 여천시 군)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못 다 이룬 정치적 꿈을 이루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 KCRP(Korea Conference of Religion for Peace)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현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종교간 대화협력, 남북 및 국제 교류

박 : 그야말로 '소명'이란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직무 활동을 위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김 :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5시부터 맑은 기운으로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우리 몸에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여 정신과 기운을 맑게 하여 심신을 단련시키는데 최고의 운동이지요.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지만 체력단련을 위해 국회건강관리실을 종종 이용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부터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도 심신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 젊게 보이신 이유가 다 있네요. 현대 생활에서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선 수행이나 명상 등에 큰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와 철학의 관심이 결국 수행자적 생활로 이어졌네요.

김 : 박 선생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박 : 뻑뻑한 일정 중에도 그런 좋은 습관을 지니신 게 부럽습니다. 현 의원 활동 중 제일의 관심 사항은 무엇인지요?

김 : 무엇보다 저희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여수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수세계박람회는 내년 5.12-8.12일까지 개최되며 약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88올림픽, 2002월드컵과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저희 지역 구 여수에서 개최하게 되어 최선을 다해 지역구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외동포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향후 남북이 통일된다면 우리 한민족은 그 부지런함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며 우수한 한민족의 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 자문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 정치 선진국이란 문화강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또 지나 온 역사를 볼 때 이전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축의 중요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런 활동 가운데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 주요 직책을 볼 때 제의 가치를 '평화'에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고 통하지 않는 길은 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 갈등과 충돌이 만연하고 있고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이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남한사람이면서도 영호남, 보수와 진보, 정치권에서도 여와 야가 심각하게 갈등을 계속하고 있지요.

제가 늘 '도의 정치'를 주창하는 것도 무릇 '도의 정치'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고 모든 생명, 인간, 환경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가정,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화합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보편적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우리 국회에 '정치는 사랑중의 사랑'이라는 모토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작은 운동이 있습니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그것인데요.

정당과 종교의 벽을 넘어 참된 정치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당론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우선하여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들을 보호하고, 상대방 정당을 자신의 정당처럼 존중하며, '정치는 사랑 중의 사랑'이라는 이 운동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연구모임입니다.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다보더라도 종교인으로서, 양심을 가진 철학자로서, 또한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작은 운동을 통해 온 세계, 인류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 : 각 의원님들마다 나름의 의원 활동의 목표나 가치가 있으시겠지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각자 자기 삶의 목표, 혹은 신념 등을 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유명하고 있거나 실전에 옮기는 쉽지 않은데... 저도 반성이 됩니다. 그럼 존경하시는 분이나 롤 모델은?

김 : 원불교 좌산(법호, 左山) 이광정 상사님이십니다.

원불교 최고지도자이신 종법사를 지내시고 상사로 추대된 분으로 법호에 좌자가 붙어서인지 대단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부처가 절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활불(活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치 입문을 권해 주신 참 스승님이십니다.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 (2010. 4)

生活是佛法 佛法是生活(생활이 바로 불법이고, 불법이 바로 생활)이라며 불법을 공부한다고 평생 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불법으로 정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교육도 살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참된 불법이라며 출가하는 심정으로 출마를 하라고 하신 분이죠.

박 : 종교나 비종교적으로도 이 시대에 참 스승님을 모시는 것은 참 큰 복이라 여겨집니다. 진리적 본질을 보지 않고 종교적 분별을 먼저 내세우는 행태가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수행이나 생활하시는 기준이 이전 이해가 됩니다.

언젠가 국회 폭력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 모두를 대신하여 국민에게 홀로 참회의 3,000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 나름의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것 또한 하나의 평화적 신념의 표출이신지요?

김 :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국회가 또 한번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력행위에 대해 부족하나마 저라도 사과드려야 했기에 3,000배로 사과의 절을 올렸던 것 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간절한 염원이자 오랜 바람인 국회 평화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었지요.

박 : 나중엔 부인까지 함께 하시던데 사과의 자리라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김 : (웃으시며) 늘 좋습니다. 공직을 맡은 이후로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사회를 위한 공적인 일이라 서로 위안을 하곤 하지요.

박 : 가장 영광스런 수상으로 여기시는 것은?

김 : 가장 영광스러운 수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18대 국회 들어와서 2년 연속으로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뜻 깊은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약했던 사업들에 대한 약속이행 평가를 받은 것이고 평가결과 우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 : 그런 '신뢰'에 대한 상이라면, 더군다나 2년 연속의 수상이면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실 만합니다. 의원 활동 자료를 보니 분회이나 상임위 출석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더군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박 : 건축적인 논의 전에, 혹은 '건축사'나 '건축가'란 용어에 대해 알고계신지요?

김 : 글썽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나 약사 등에 비춰 보면, 국가자격을 갖춘 분들을 건축사라 하고, 건축가는 보다 일반적, 관용적인 용어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박 : 역시 의원활동을 하시니...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공익성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여러 '전문자격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권한 등

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명칭의 사용부터 정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쭙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평가하신다면?

김 : 우리나라는 너무 아파트 위주로 보입니다. 도시 성장이나 산업화를 통한 급성장의 결과겠지요. 그나마 최근 서울시를 비롯하여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아마 앞서신 건축 전문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리라 생각 됩니다.

주거가 건축 행위 중 제일 기본이고 시대적, 의식적 변화로 볼 때 다양하고 실험적, 창의적 제안이 풍부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옥 보존에 대한 논의도 제법 활발한 것 같고... 전통 주거의 계승이나 진화랄까, 적절한 용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구요. 이전 노력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맞춤형 형태도 나왔으면 하구요. 아무튼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어느 정도 이상의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박 : 거의 전문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의 주거, 혹은 건축적 형태와 비교하신다면?

김 : 전문적인 비교야 전문가들께서 잘 하실 일이지요.

그래도 질문을 하시니...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 어떤 형태적, 주관적 느낌보다는 대체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르는 것 같아요.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서 높은데 집을 짓는대거나 수상가옥 형태가 나타나고, 석재가 많이 나는 지역은 아무래도 석조집이 많고... 눈이나 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뽕죽 지붕이거나 경사 형태의 집을 짓더군요. 물론 해설을 듣고서 이해한 경우가 많았지만요.

다른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 : 그래도 핵심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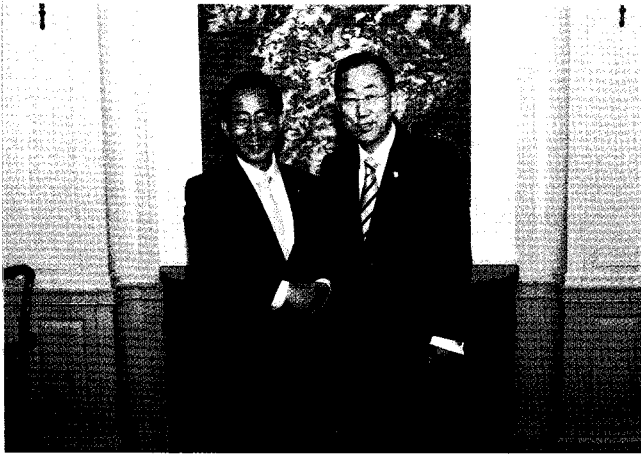
몇 년 전,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서울시의 '서민주거대책'을 추궁하시면서 뉴타운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거주민의 주거 환경과 질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금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 :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의 성장이나 외형 위주가 아닌 진정한 삶의 질, 모든 시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죠. 살아 온 과정이 녹아 있는 지역에서 결국 자꾸 쫓겨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뉴타운 등 주거 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이나마 그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다행이구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의 공동체성을 살려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건축사 같은 전문가분들의 '창의적 노력'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박 : 참,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늘 저희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삶의 환경을 다루는 만큼 특히 국회의와의 공조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함께

김 : 잘 알겠습니다.

박 : 담당하고 계신 상임위원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위’ 업무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김 : 국회 기후변화특위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으로 풀어내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제2기 기후변화특위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특위 위원이기도 하지만 (사)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17대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이기도 했고 여수세계박람회와의 연계성, 그리고 공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단체 엮기에 오랫동안 관여해오고 있습니다.

박 : 특이한 활동 중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있으시던데, 어떤 활동이며, 왜 남해안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김 : 남해안시대연구모임은 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입니다. 국회의부의 장이신 정 의화위원님과 이 주영위원님, 저 이렇게 3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는 경제적 개념이 좀 더 강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별되는 경제권역으로 남해안만이 아닌 사회 통합적 개념으로서 남해안시대의 뜻도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남해안이라는 개념 하에서 하나로 통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연구단체 결성의 주요한 동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남과 경남을 번갈아 가며 연구모임을 개최함으로써 영호남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박 : 저희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당을 넘어 국가와 지역 발전, 화합을 도모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건축문화 행사(전시회, 영화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셨다면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김 : 따로 건축문화 박람회 등을 찾아볼 기회는 없었구요, 근데 며칠 전에 국회에서 ‘땅콩집’에 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요

즘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이 땅콩집이 그러한 문제들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건축사분들께서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박 : 올해도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10월 20일부터 2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부러 기회를 만드셔서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에 대해 진정한 깊은 이해는 필히 큰 보람과 가치가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 이런 자리를 흔쾌히 마련해 주시니 충분히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김 : 잘 알겠습니다.

박 : 인간관계, 혹은 업무, 사업 등의 직, 간접적 건축 관련 경험이 있으신지?

김 : 18대 전반기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건설산업의 이모저모에 대해 파악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만간 ‘해비타트’ 운동 등에 참여해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을 직접 지어보고,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박 : 감사합니다. 점차 그런 나눔의 사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리라 예상되는데, 아마 저희들과의 만남도 곧 더 생길 것 같네요!

‘건설산업’은 이제 세계적이라 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이면에는 국가적으로 제도, 정책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건축설계업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장차 서비스 및 컨텐츠 산업의 증진, 혹은 소프트웨어 위주의 ‘창의 산업’에 대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 우리나라, 우리사회는 특히 변화가 심한 시대를 거쳐 왔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지요. 외형 뿐 아니라 의식이나 가치관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건설, 건축 쪽의 성과나 외형 위주의 인식 구조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형의 의식이나 마음에서 유형적 결과가 나타나듯이 소위 ‘소프트웨어’를 앞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여러 산업의 진흥이나 촉진이 법령, 제도적인 힘을 입어 왔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축설계분야의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야말로 꿈과 상상력의 시대라고 하는 만큼 그 무형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또한 나름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 : 그에 따른 건축설계분야에 충고나 제안을 하신다면?

김 : 건축설계분야도 얼마나 신속하고 바람직하게 변화해가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 자신, 자체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겠지요. 법, 제도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지대함은 사실이나 그래도 시대를 읽는 힘과 함께 업무적 기본을 지키고 가꾸며 자력, 혹은 대응력을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꾸준한 노력이 있고, 또한 주변에서도 그를 인정할 때 주변의 지원이나 격려가 함께 할 것으로 봅니다.

박 : 우리 사회나 여러 산업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만연하고 중소 규모 업체의 어려움은 건축설계업체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신다면?

김: 현 자유 시장 경쟁체계 하의 문제점이죠.

우리 사회 모두가 각기 역할에 맞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제가 건축설계분야에 대해선 아직 일천하여 적절한 언급은 어렵구요. 중소기업 등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나 정부까지 공적 지원이나 정책적 배려 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의 느낌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도 대체로 그러하겠지만, 지금은 중간 규모의 건설업체들조차 사업의 다각화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여러 시도나 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것 같아요. 설계분야에서도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스템과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 해외 건설 산업 진출과 더불어 최근의 K-Pop,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적 한류까지 세계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설계 분야도 멋진 건축한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축한류'를 위한 지원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저도 그럴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저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종종 외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경험과 앞선 기술을 가진 세계적 건축가에게 맡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최빈국에서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젠 우리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 잠재된 능력, 열정과 의지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개도국에의 지원은 물론, 일부 분야에선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을 성취가 있지요.

미래에는 문화적 역량이 국가나 국민의 '신진성'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고 하니 전자에 논의된 소위 소프트웨어, 우리의 건축설계를 통한 '한류'를 기대하고 힘자라는 데까지 톰도록 하겠습니다.

박: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보나 자료 등 국가 사회적 지원에 힘써 주시면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문화의식'이란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참 미흡하다는 느낌을 저희 건축계에서는 지울 수가 없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 글썽요. 전문가들이 그리 느끼신다면 그럴것지요.

그러나 문화의식이 낫다는 지적과 함께 그 전문인들의 사회적 노력이나 역할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어땠든 도시의 건축이 발달하면서 그런 의식도 깨어나리라 여기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전문인들이 앞장서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젠 순수 예술 분야에서의 문화적 의식은 제법 올라 왔다는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겠지요!

마치 자기의 권리 찾거나, 자기의 위치 만들거처럼...

박: 앞으로 저희들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자리도 그런 일환이라 여기고 이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의 느낌과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것과는 차이가 많겠지요.



형님 로버트 김과 함께(※로버트 김 : 미 국가정보의 한국 유출 혐의를 개인적 희생으로 수용, 극복함)

김: 그렇지요. 시대적 상황과 어울려 어려모로 좀 시끄럽고,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는 우리 국가,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박: 얼마 전, 천호동(419-1)에서 건축사나 전문기술인이 없는 수선공사, 리모델링 현장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큰 규모나 공공건물 등은 그래도 관리 전문인들을 활용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공공관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 안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 시각 지대나 취약한 영역이 있으면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 협조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생명과 재산에 관한 안전 확보는 국가나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니까요.

건축전문인들, 특히 건축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선도를 기대합니다.

박: 장차 그에 따른 올바른 조치와 함께 그를 실천할 실효적 방안이 중요한데, 그런 건축, 환경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김: 저는 무엇보다 좋은 건축과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지나 의식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기술이 있어도 그를 활용할 마음이나 함께 할 공감대가 바탕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국민은 무서운 결집력을 보여 왔어요. 그래서 요즘 '소통'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 이렇게 의원님과 귀한 시간 함께 하는 것도 소통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입법의 주체이시고 조만간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으리라 예상도 되니 큰 힘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그와 연관해서, 건축사 단체에서는 앞으로 건축의 전 생애관리, 혹은 생태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입법화를 제안하려 합니다.

다. 혹시 그런 논의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의견이 있으신지요?

김 : 제안된 법안들이 무척 많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할 필요성은 이해되고, 인정됩니다. 다만, 그와 함께 현실적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겠지요. 보다 정리된 자료를 보았으면 합니다.

박 : 곧 정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차 국가 사회의 공공재 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관광, 레저선 산업진흥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분야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기회를 빌어 다시금 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 아까도 언급 되었지만, 앞으로 '문화'가 국력인 시대가 아닙니까!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 문화적 총아라는 말을 듣고 저도 공감한 바 있습니다.

건축이 우리 삶의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데, 그 발전을 위한 정당한 법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요.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접하지 못했으나 때가 되면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 문화적 선진국을 이뤄야지요.

좋은 기획 기대하겠습니다.

박 : 감사합니다.

실행적 검토 과정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그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 질 것으로 봅니다만, '업역'이란 관점을 떠나 국가, 사회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이시기 때문에 결국 법적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 : 괜찮습니다. 좋지요 뭐

박 : 건축계, 혹은 건축사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시면?

김 : 방금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땅콩집, 듀플렉스 홈이라던가요? 신혼부부용, 혹은 전세난, 무주택자들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에서 고급 주택, 대단지 주택을 짓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보급 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해 보지요.

추도(섬)의 천연기념물인 공룡발자국 화석, 등록문화재인 옛 담장 외 여수의 대표적 자랑거리나 홍보사항은?

김 : 여수의 자랑은 역시 다도해의 보물인 섬입니다. 이순신장군의 얼이 서린 진남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설을 품고 있는 오동도와 원효대사가 도를 닦았던 향일암이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여수는 317개의 유·무인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공룡발자국도 사도섬에 있고 대통령이 추천했던 비령길(벼랑길)은 거문도에 있습니다.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백도도 있습니다.

해양시대에 걸 맞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깊고

아늑한 휴식을 위해서는 여수로 오십시오.

박 :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 전에 가본 후 근저에는 들리질 못 했는데, 오늘의 인연으로라도 좀 시간을 내야겠네요.

여수가 지역구이신만큼 2012년(5.12~8.12)의 '여수 엑스포'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의원님으로서 제일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요?

김 : 여수세계박람회 는 우리지역 최대현안입니다.

내년 5월에 개최되어 3개월 동안 국내외의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박람회 사이트 조성을 위하여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개선을 위하여 철도와 도로를 개선시켜서 올해 하반기에는 3시간 중반에 여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정부를 상대로 고속화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여수세계박람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후 활용이 가능한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사후활용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수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해양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여수를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 건축/도시적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일인 만큼 이미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성공해야 할 사업이니 어떤 힘이라도 모아야지요.

(끝으로)국제적 행사와 사업을 통해 이룩한 접근성 개선 등 도시적 인프라의 구축만으로도 큰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지속적 도시 발전을 위한 시설 및 환경적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 : 여수는 친환경생태도시와 해양관광중심도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천국가산단의 공해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최악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알기에 여수시민들은 친환경에 대한 개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도시교통체계에 II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공해유발을 최소화하고 박람회장 내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약형 그린빌딩을 설립하는 등 도시전반에 대하여 선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섬세한 도시디자인 개념을 접목시켜 친환경해양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전략으로 내세운 친환경, 유비쿼터스, 디자인, 문화 박람회란 취지로 보면 건축분야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차 범 건축계와의 상생적 프로그램을 위해 저희들도 적극적 모색을 해 보고픈 마음입니다. 적극적 후원을 기대하며 의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